

## ●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-32호

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23일

금융위원회

### 1. 개정 사유

- ☐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여,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·제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

### 2. 주요 내용

#### 1.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의 위임 (→ 금융위원장)

##### ① 신용정보업 관련 과태료

-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유지, 개인신용정보 보호·관리 등과 관련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

##### ② 보험업 관련 과태료

-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시 지켜야하는 설명의무, 공정광고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

※ 동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중소형GA(500인 미만)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미 위임 되어있으며, 이번 개정에서는 대형GA(500인 이상)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가로 위임

##### ③ 퇴직연금 관련 과태료

-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,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공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

##### ④ 대부업 관련 과태료

- 대부계약시 설명의무, 자필기재 의무나 대부업자의 과장광고 금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

##### ⑤ 채권추심 관련 과태료

- 채권추심 수임시 채무자에 서면통지 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사항

## 2. 과태료 위임의 상한금액 설정

- ☐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\*의 경우라도 상한금액을 두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

\* 금번 개정 이전에 이미 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과태료도 포함

- ☐ 위임 상한금액의 설정기준으로는 ❶ 원칙적 위임, 예외적 위임배제 ❷ 여타 법령상 위임사례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가능

- 먼저 Benchmark로서 자본법상 과징금위임(금융위→증권위) 사례를 보면 상한금액은 5억원이며 실제운영결과 위임비율은 약 86%

(대상기간: `18년 ~ `20.6월)

부과 금액	5천 미만	~1억 미만	~1.5억 미만	~2억 미만	~3억 미만	~4억 미만	~5억 미만	~5억 이상	합계
건수(건)	76	19	15	9	13	7	3	24	166
비중(%)	46	11	9	5	8	4	2	14	100

- 금번 운영규칙상 과태료 위임의 경우 상한 5천만원때는 위임비율이 약 85%, 상한 1억원때는 위임비율이 약 96%가 될 것으로 예상됨

(대상기간: `17년 ~ `19년)

부과 금액	5천 미만	~1억 미만	~1.5억 미만	~2억 미만	~2억 이상	합계
건수(건)	186	24	8	1	1	220
비중(%)	85	11	4	-	-	100

※ 통계상 쏠림의 완화를 위하여 부과금액이 전액 5천만원 미만인 금융실명법·여전법 과태료는 제외

- ☐ 과태료 위임 상한금액 설정 : 5천만원

- 5천만원으로 설정시 위임비율이 약 85%로서, ‘원칙적 위임’ 기준에도 부합하며, 자본법상 과징금 위임의 선례와도 일관성 유지
- 1억원도 고려가능하나, 위임비율이 96%로 지나치게 높아, 위임상한을 두는 취지나 선례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

### 3. 세부 개정 내용

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\*

\* 금융위원회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